

다산포럼

김정남



40년 전쯤, 내가 막 살림을 시작했을 때는 겨우내 식구들이 먹고 살 쌀 두세 가마, 방에 지필 십구공판 1천여 장, 그리고 겨우내 반찬으로 먹을 김장을 한 1백 포기쯤 담가 땅에 묻어 놓으면 '겨울준비 끝', 그러면 그 해 겨울은 따뜻했다. 무서운 보릿고개가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봄은 언제나 희망의 계절로 겨우내 기다려졌다.

날짜만 가지고 따진다면야 지난겨울을 역시 따뜻했다. 한두 번의 한파와 설날 무렵의 폭설을 제외하고는 유별나게 출세 기억되는 겨울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출세 시작했고, 우리를 마음속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최근 두 달 새 폐업한 자영업자가 42만 명에 달하고, 실질적인 실업자 수도 이미 4백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자연의 겨울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추운 겨울은 이제 겨우 초입에 있다는 전문(傳聞)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아는 사람이 지리산 고로쇠 물을 보내 왔다. 고로쇠 물을 빨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내는 일이 내게는 영 마땅치 않다. 그러나 보내준 정성을 저버릴 수 없어 보내는

것은 애써 다 비웠다. 언제부터인가 봄 소식은 꽃보다 고로쇠 물이 빨리 전하는 것 같다. 우수(雨水) 무렵이면 나기 시작해서 남쪽에서 화신을 전할 때쯤이면 고로쇠는 이미 끝물이다. 물도 유행을 타는지 이제는 고로쇠 물이 광양의 백운산이나 남원·구례의 지리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도 난다. 이렇게 봄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동네 뒷산 작은 계곡 얼음 밑에서도 돌돌돌 물 구르는 소리가 어찌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머지않아 세상의 모든 못에는 봄 물이 가득할 것이다. 교외로 나가보면 농부들은 벌써 들에 나와 겨우내 얼어있던 농토를 가다듬고 파수 밑에 거름을 듬뿍 뿌려주고 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냄새가 싫어 얼굴을 돌리지만 나는 뽕뽕새, 거름뽕새가 결코 싫지가 않다. 농촌 태생이라 그런지 그런 뽕뽕새에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러나 희망으로 새봄을

없으면서도 있는, 그리고 항상 변화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는, 공즉시색 색즉시공(空即是色 色即空)의 오묘한 불가의 이치를 알 듯 모를 듯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봄은 왔지만, 특히 올해 봄은 봄이 봄 같지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 세계가 그렇다. 경제위기와 불황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봄이 봄 같지 않게 느끼게 하는 것이 어디 그런 세계적인 경제불황 탓뿐이라. 웅산 참사와 그 뒤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남북

주말에는 나도 내 조그만 농장에 톱과 낫을 들고 나가 주변을 정리했다. 작년에 심었던 고추대를 뽑고, 밭에 그늘을 지게 하는 산자락 나뭇가지를 잘랐다. 나무엔 물이 올라 톱질이 쉽지 않았고 나무껍질엔 파란 기운이 퍼져있었다. 자연의 변화와 절기에 민감하기로는 나무만한 것이 있을까. 나무는 하지(夏至)에 이미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가을에는 벌써 내년 봄에 싹을 준비를 한다고 들었다. 무성할 때 떨어질 것을 준비하고, 죽어 있을 때 다시 태어날 것을 예비한다.

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만물이 생장수장(生長收藏)을 거듭하는 걸 보면서, 항상 있으면서도 없고, 항상

관계 또한 어디서 어디로 될지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 우리를 안심시켜줘야 할 정부는 불안을 보내고, 여의도 정치권은 희망은커녕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봄이 한창일 때, 북한산 대남문 북쪽계곡, 대성암 주변의 우거진 숲은 아름답다. 너와 내가 다르되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모습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보다는 부동이화(不同而和)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화이부동은 화합하되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동이화는 다르지만 화합하고자 뜻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 봄에 우리 모두 부동이화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 봄에 절망만 하지 말고 시 한 편 읽으며 이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길이 있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길이 있는 사람이 있다/스스로 봄 길이 되어/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보라/사람이 끝나는 곳에서도/사람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람이 되어/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전문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지역간 학력 격차 이렇게 커서야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광주·전남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동안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그 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커격격적이다. 특히 곡성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대상 평가에서 전 과목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아 지역민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이번 평가 결과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 간 학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광주 초등학생들은 전남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졌지만 중·고교생들은 전남 학생을 월등히 앞질렀다.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시도 간 학력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여수, 순천, 광양 등으로 동부권 시 지역과 신안, 무안, 장흥, 완도 등 농촌 및 도서 지역 간의 기초학력 미달 다. 특히 곡성은 무려 3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학업 성취도에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지역 공교육에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 격차는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인재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지역 간 학력 격차는 학교장과 교사의 열의, 학교의 학습환경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군 교육청 및 학교 평가와 연계해 성과가 미흡한 곳에 행정적, 인사업 불이익을 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발표 결과를 놓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력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지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해도 너무한다

지난 15일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가 기계 고장을 일으켜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하행선 케이블카에 탑승했던 승객 90명이 지상 20m 높이에서 2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의해 모두 구조됐지만 일부 승객은 급정지 순간에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말이 2시간이지 이들 탑승객이 느꼈을 공포는 20시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건 두륜산 케이블카가 정기점검을 받은 지 3일 만에 고장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12일 두륜산 케이블카에 대해 38개 세부항목별 점검을 했다. 공단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점검을 통해 지주, 밧줄, 운반기구, 구동·제동 장치, 전기선로 등을 살피고 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혹시 정기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케이블카는 지난 2003년 7월에도 개통한 지 5개월 만에 고장이 났다. 관광객들이 밀려들면서 전력 과부하로 멈춰선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불상사였다는 데 있다.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정지 순간에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말이 2시간이지 이들 탑승객이 느꼈을 공포는 20시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당국은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관리나 점검이 공명불에 그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초콜릿의 주원 재료는 카카오다. 초콜릿은 잘 익은 카카오 콩을 볶은 다음 갈아서 만든 코코아 매스(초콜릿)에 버터와 설탕과 같은 다른 재료를 섞기도 한다. 코코아 매스가 얼마나 함유됐느냐에 따라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으로 나뉜다.

사랑하는 연인, 귀여운 자녀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는 초콜릿. 그러나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 제배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질 수도 있다.

한 번 맛보면 입사리 뇌리에서 지우기 어려운 초콜릿의 유혹 속에는 카카오를 생산하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고통이 스며들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가난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카카오 농장에서 일한다. 사실상 강제노역에 흡사당하는 아이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러 조사됐다. 이토록 고된 일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임금이나 제대로 받고 있을까? 우리가 먹는 1000원짜리 초콜릿 중에서 농장

에서 갖는 수익금만 20원이라고 한다. 나머지 98%는? 초콜릿 생산과 가공, 판매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에 다 대부분 백인들인 제조업자의 마진 등으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을 알고난 농장 측에 전하지는 2%의 수익 가운데 중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손에 쥐여 지는 돈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해진다.

지난 14일은 초콜릿의 날로 정해진 '벨린타인데이'였다. 벨린타인데이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에 반대한 사제 벨린타인이 처형된 270년 2월 14일의 기념일과, 이날부터 새들이 발생(發情)을 시작한다는 사양의 속신이 결합한 풍습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벨린타인데이에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한다. 초콜릿의 달콤한 맛에 녹아 있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눈물도 한번 생각해보자.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초콜릿의 '눈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류동훈



최근 도청 별관 철거 문제 갈등이 장기간화되면서,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줄어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광주를 살릴 절호의 기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주 가수 일류가수 만들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서울 중심 방송의 영향으로 서울 가수들이 대중문화의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역량과 노력에 비해 적박한 대접을 받으며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의 지역사랑운동

다!"라는 슬로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 유명 여성 트로트 가수가 광주에 와서 하룻밤 공연을 하고 가면 보통 30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한다. 우리는 하룻밤 3000만원이 광주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좋다고 춤추고 열광을 한다. 광주 가수를 살리면 이 가수들이 광주의 각종 행사를 축제 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아무런 지역 가수 공연을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광주 가수가 공연에 출연하면 그 행사를 더 많이 가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는 것이 바로 광주 경제를 살리고, 나를 살리

광주 일류가수를 키우자

로 돌아해 나가는 운동이다. (사)광주 전남행복발전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문화도시 일류가수 업단'을 만들어서 지역 가수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지역 가수들이 복지기관, 병원, 각종 공의 행사, 어르신들 식사 대접기관, 대중교통 사랑 운동 캠페인 등에 봉사 공연을 하고, 또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가수들이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몇 광주 가수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음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음반들은 유통판매 시장도 부족하고, 광주 가수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편견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복발전소 연구원과 회원들은 지역 가수들의 음반을 맨투맨 작전과 각종 공연 캠페인에서 적극적으로 이 음반들을 팔아 주고 있다.

이 운동에서는 시민들에게 "당신이 있는 광주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문화수도 광주 가수를 일류가수로 만드시는 길이다. 광주 가수가 돈을 많이 벌어서 광주에서 써야 광주 경제가 돌아오고, 내가 일류가수를 언제든 만나서 정을 나누며 즐길 수 있어 우리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이를 위해 행복발전소에서는 오는 3월10일(화) 오후 6시-11시까지 CMB방 송국 1층 연회홀(시청 앞)에서 '광주가수 명곡모듬집 음반 만들어주기 후원 시민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 가수들의 좋은 노래를 모아서 오픈버스 모음 음반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판매도 해 줄 계획이다. 이 음반이 지역에 수만장이 배포되고, 언제든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배우고 즐기며 지역 사랑의 마음을 모아가면 아시아문화도시에 대한 찬찬한 열정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지역가수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나중에 천명 이상이 모이는 광주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를 시민의 힘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랑의 불꽃을 태워 아시아문화도시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기고

최현주



하천이 항상 생동감을 유지하는 것은 자정작용 때문이다. 발원지의 맑은 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오수로 오염되기도 하고, 자연의 현인 자정작용으로 깨끗해지기도 한다. 정부가 2011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프로젝트는 1조 4천억원을 투입하는 친환경적인 뱃길복원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은 물론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영산강 뱃길과 교대문화사 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 뱃길은 강 중·하류인 나주 노안(학산교)에서부터 영산강 하구둑에

그러나 영산강 프로젝트는 영산강 수질오염원의 70~80% 차지하는 광주 시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강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친수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우선순위를 시급히 보완하지 않으면 맑은 영산강은 요원해진다. 광주시 발생 오수의 영산강유입차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고질적인 광주천 오염원인 광주 도심 하수관거를 유·오수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개선 등 6개 분야로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광주천 수질개선부터

이르는 68km구간에서 강 분류를 깊이 6m, 넓이 60~70m로 배가 나날 수 있도록 하천 바닥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절대수량이 부족한 영산강물이 폭이 좁고 수심 깊은 강물이 되어 물과 공기의 접촉기회가 극소화되어 수질 자정작용은 거의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변화(2006년 기준, 단위: mg/l (ppm))를 살펴보면 상류 담양에서 BOD 1.4인 1급수로 출발하여 광주 서창교 지점에서 5~6급수로 10.6로 최악을 보이다가 광주~나주경계 지점 7.0, 나주 4.8, 함평 4.2, 무안 3.7, 영산강하구둑 2.3에 이르기까지 광주 이후부터는 자정작용으로 수질이 크게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류에서 1~2급수로 깨끗하던 영산강은 대도시 광주를 지나면서 상수도 물 45만톤을 하루 70만톤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고 5~10만톤의 광주천 합류로 유량이 확대되는 반면 수질은 5급수로 악화된다.

광주시는 수질오염저감을 위해 2005년부터 영산강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개선,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 시설 등 5천600여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부분적인 오수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BTL방식 민간투자자에 의존하고 있어서 2011년부터 민간투자에 대한 임대료를 상환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오수저감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주·전남은 이해관계를 떠나 영산강의 근본적인 수질오염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수질개선편호를 낼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런 점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10여 차례 건의해왔다. 정부는 영산강 상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율을 높여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우회로 가로 막은 현수막 교통사고 위험

몇일전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와 유모차를 칠했다. 교차로이고 우회전이라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았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면 그대로 칠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서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하지만 정신을 추스르고 보니 그 모퉁이에서 신장검합한 횡집이 있었는데 모퉁이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신장검합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을 붙여놨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횡집 현수막 바로 아래에 가구점 현수막까지 아래 위로 나란히 붙여 오른쪽 상황을 전혀 알수 없게 해줬던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현수막과 특히 아래위로 2개를 게시했을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막고 있을 경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박진민·전남 목포시 서산동>

토지은행제도 농지 난개발 부를 수도

농지는 생명을 임태하는 고귀한 땅이다. 농민들에게 그 땅은 영원한 삶의 원천이다. 그런데 얼마전 직불금 문제로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혔다. 그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며 법석을 떨었다. 정부가 이제는 그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장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싸게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할거라고 한다. 그러나 각종 규제조치가 있었고, 그 부재지주가 불변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 가로채고자 하는 농업생산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런 국가가 개발한다는 목적 아래 농지에 대한 수용이 아주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 농지는 아프리카의 땅이 지꾸만 사막이 되어가듯 점차 콘크리트로 뒤덮여 갈것이다. <▲김삼욱·전남 목포시 대방동>

몇일전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와 유모차를 칠했다. 교차로이고 우회전이라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았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면 그대로 칠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서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하지만 정신을 추스르고 보니 그 모퉁이에서 신장검합한 횡집이 있었는데 모퉁이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신장검합을 알리는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지)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 화 홍 보 국 2200-672	광 고 미 케 영 국 2200-521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처 부 2200-634	어 려 운 제 부 2200-679	인 사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2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